

영유아 교육 정보를 꼼꼼히 따져본

영유아 교육 전문가 28인

- 권장희**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 김승현** 송실고 영어교사, 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 김영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책임연구원
- 김영훈**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신경과 전문의
- 박창현** 유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 서유현** 가천대 뇌과학연구원 원장, 전 서울의대 교수
- 신성욱** 과학저널리스트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 저자
-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 안순아** 유아종합지원센터 강사, 유아 상담가
- 염지숙** 건국대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영유아교육교육학회 회장
-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저자
- 윤다옥** 노원리상담소 소장,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 저자
- 윤일순** 남양주 개구리어린이집 원장
-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이경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적기교육' 저자
- 이남수** '솔빛이네 엄마표 영어연수' 저자
-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당신의 영어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 이혜린** 부모교육전문기업 그로잉맘 공동창업자, '엄마의 속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자
-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 임재택**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회장, 부산대 명예교수
-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 정승훈** 국제도서관교육연구소 연구원, 노원리상담넷 상담위원
- 정윤경**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 제충만** 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팀 과장, '놀이터를 지켜라' 저자
- 최수일** 수확사교육포럼 대표, '지금 가르치는 게 수학 맞습니까' 저자
- 최현주** 영유아사교육포럼 부대표
-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영유아에 관한 잘못된 생각 12가지

1

조기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잖아요.

2

3세 이전에
사람의 뇌 80%가
완성된다면서요?

3

영어는
만 3~5세 이전에 노출되면
효과가 크대던데요??

4

‘영어 유치원’ 같은
영어 몰입 환경이
대세 아닌가요?

5

독서교육의 골든타임은
영유아기라고 하던데요?

6

요즘 확산되는 놀이 교육은
일반적 교육에 비해
부작용이 덜하다는데요?

8
엄마표 교육을
제대로 못해
아이에게 미안해요.

9
영어 · 수학 · 과학 등
교과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이 좋은 곳 아닌가요?

11
재검사를 하면
아이 수준을 알 수 있어
빨리 해 보라는데요?

12
4차 산업 혁명 시대인데,
스마트 기기에 빨리
익숙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7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은 떼고 수학 연산도
끝내야 한다는데요?

10
다중지능, 몬테소리,
프뢰벨...교육이론이 접목된
교재 · 교구는 교육적으로
검증된 것이잖아요?



조기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잖아요.



“조기교육은 별 효과 없이 돈만 낭비할 뿐입니다.”

조기교육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조기교육의 효과는 두뇌가 발달하는 적절한 시점이 오면 짧은 시간 내에 바로 따라잡힐 수 있어, 조기교육은 별 효과 없이 돈만 낭비할 뿐이라고 소아 정신과 의사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영유아 시기는 생활습관, 부모와의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두뇌 발달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충분히 움직이고 뛰어 놀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그것이 두뇌 발달을 위해 가장 좋은 길입니다.

1) 조기교육이란, 학령기 이전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과정보다 앞서서 외국어, 언어, 수학 등을 일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하는 선행학습을 의미합니다.



"영유아기는 인지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아니다"

(안순아, 육이중합지원센터 강사, 육아 상담가)

영유아기는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오해를 합니다. 지적 발달의 첫째 요건은 '성숙'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발달을 위해 학습을 시키는 건 별 효과 없이 시간과 돈만 낭비할 뿐이에요. 유아 때는 기본 생활습관, 부모 자녀 간의 신뢰, 애착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유아들을 관찰해오며 얻은 확신입니다.

"조기교육은 미발달 두뇌 기능을 억지로 사용해"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조기 교육 중 한글, 외국어, 수학 연산 등 교과 교육은 추상적 사고, 언어 개념이 발달한 이후에 가능한 배움인데, 유아기는 그 발달 시기가 아닙니다. 영유아 때는 직관이 발달하고 감각에 의존하며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유아기 아이들이 교과 공부를 하려면 아직 발달하지도 않은 추상적, 언어적 기능을 이용해야하는데, 그러다 보면 무리가 생기게 되고 "나는 잘 못하는구나", "공부는 재미 없구나" 하는 생각만 갖게 되기 쉽습니다.

"적기교육으로 제때에 출발한 아이가 더 큰 역량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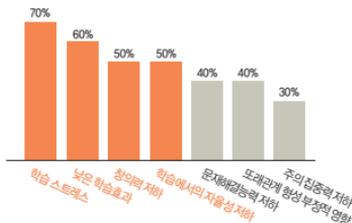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조기 선행학습의 효과를 알기 위해 만 5세부터 추적 연구한 결과, 선행사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받지 않은 아이들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점수 성적이 49.25점 vs 50.86점으로 오히려 받지 않은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의 결과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차원적인 문장 이해력은 사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이 더 큰 차이로 높았습니다. 적기교육이 아이의 성적을 뒤처지게 할 것이라는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소아정신과 의사 80%, 영유아들의 교과 공부에 부정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5 설문조사 결과

소아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들의 교과 공부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들 80%는 조기교육이 영유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70%가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낮은 학습효과'가 60%, '창의력 저하'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도 각각 5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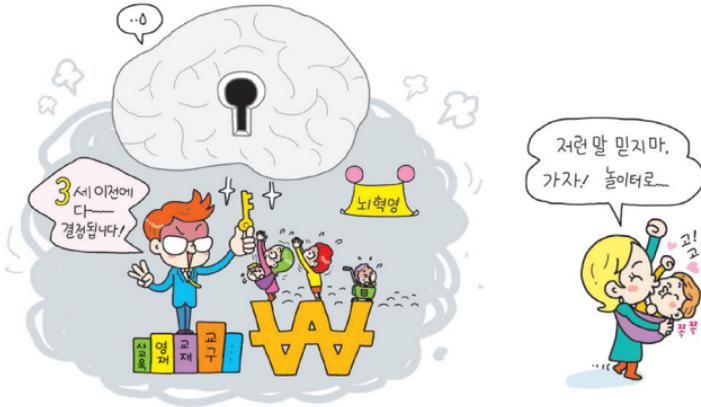


그럼 어떻게 하지?

영유아 시절 교과 공부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가정에서는 충분한 정서 교감, 자유로운 놀이로 아이들 시간을 채워주세요. 「적기교육(이기숙, 글담), 관련 강의는 「어서와 육아는 처음이지」(QR)을 참고하세요.



3세 이전에 사람의 뇌 80%가 완성된다면서요?



**“3세 신화에 속지 마세요.
좌뇌 우뇌 교육법은 과학적 근거가 약합니다.”**

사교육 기관과 교재·교구 업체에서 영유아가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홍보하며 상품을 판매하지만, 90년대 이후의 새로운 뇌과학에 따르면 이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특히 ‘3세 무렵에 뇌의 대부분이 결정된다’는 가설, ‘좌뇌는 언어, 논리 등을, 우뇌는 직관, 창의성 등을 담당한다’와 같은 이분법이 그 대표적입니다. 영유아 시기의 뇌는 인지학습보다는 엄마 아빠와의 스킨십과 상호작용, 충분한 휴식과 놀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인지학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교육 프로그램, 화려한 교재·교구와 같은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뇌 발달에 독이 됩니다.



“3세 신화는 거짓! 뇌 성능은 40대 후반~60대 초반에 가장 똑똑해져”(신성욱, 과학저널리스트)

흔히 알고 있는 '3세 신화' 즉 뇌는 3세에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가설은 낡은 가설입니다. 신경망 최소 단위인 '시냅스'의 밀도는 생후 2~12개월 무렵 최고조에 달한 후 하강곡선을 그립니다. 이것만을 보고 3세 이전에 뇌가 완성된다고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영유아 시기의 시냅스는 가설공사처럼 임시로 수많은 연결을 해놓고 이후 가지치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이르러 가장 똑똑한 뇌로 바뀌지요.

“뇌는 10세가 되어야 추상적 사고를 길러주는 학습 가능해”(김영훈, 소아신경과 전문의)

4세의 뇌 신경세포 포도당 소모량은 성인의 2배 정도이며, 10살 이후에 줄어듭니다. 즉 뇌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4-10살 사이에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5살 아이가 15살 아이보다 더 많이 더 쉽게 배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학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은 10살 이후부터로, 그전에는 추상적 사고 학습을 시켜서는 곤란합니다.

“뇌는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일하지 않아요”(김영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책임연구원)

2012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좌뇌, 우뇌 구분 없이 뇌의 전 영역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흔히 알려진 논리적인 좌뇌형 인간-창의적인 우뇌형 인간의 구도가 아닌, 논리력과 창의력을 사용할때 좌뇌와 우뇌가 함께 유기적으로 일한 것이죠. 좌뇌-우뇌 이분법에 속지 마세요.



“3세에 뇌의 대부분이 결정된다는 것은 신화일 뿐”

OECD, 『뇌에 관한 여덟가지 신화』 보고서 중

OECD의 2007년 보고서인 〈Understanding the Brain : The Birth of a Learning Science〉는 뇌에 관한 잘못된 8가지 신화를 소개합니다. “3세 무렵에 뇌의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결정적 시기가 있다”, “평생 동안 뇌의 10%만 사용한다.”, “좌뇌형-우뇌형이 있다.” 등 조기교육의 근거로 인용되는 가설들을 OECD는 잘못된 신화라 지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관련 도서로는 『조금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신성욱, 어크로스), 동영상 강연으로는 『우리가 속아온 뇌 과학의 신화와 진실』(QR)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어를 만 3~5세 이전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 효과가 크다면데요?



“외국어 학습 결정적 시기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외국어 습득에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이른바 결정적 시기 ‘가설’은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며, 과학적 근거가 약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단일 언어 사용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적 시기 기준 또한 13세 전후 관련 논쟁으로서, 3~5세 때가 결정적 시기냐는 물음은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영어 노출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결과를 보았다는 학문적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의 영어교육이 효과를 보려면 엄청난 양의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하는데 부모와 아이 모두 지치게 하며 부작용만 클 뿐입니다.



“뇌 발달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취학 전 영어학습은 효과 없어” (서유현 가천대 뇌과학연구원 원장)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 뇌 발달 이론에 비추면 교육적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중 언어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뇌 측 두엽 언어중추의 시냅스 회로가 덜 발달한 시기에 두 개 언어를 동시에 강제적으로 많이 주면 두개 언어들이 상호 경쟁을 해서 뇌가 효과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영유아 시기, 영어 조기교육 의미 없어.”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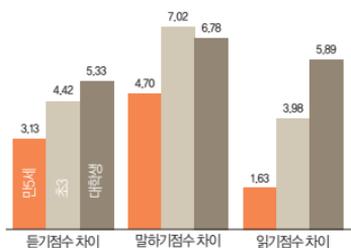
‘언어의 결정적 시기’ 관련 연구는 이민자들이 많은 미국에서 ‘몇 살에 영어를 배워야 원어만처럼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서 시작되어 13세 전후를 결정적 시기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외국어로 접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런 연구 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 시기 아이는 소통의 필요성이 있을 때 두 언어, 그 이상의 언어도 동시에 습득하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으면 한 가지 언어로 곧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조기영어교육 효과가 입시영어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김승현, 숭실교 영어교사)

조기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대입 고득점에 두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영어나 입시 영어는 일찍 시작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학교수업을 따라가면 좋은 점수는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영어 실력의 제1요소는 ‘동기’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영어에 대한 필요성에 강한 동기를 갖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대부분 자기 진로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취학 전 유아에게 큰 효과가 없어”

2015, 육아정책연구소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 초기 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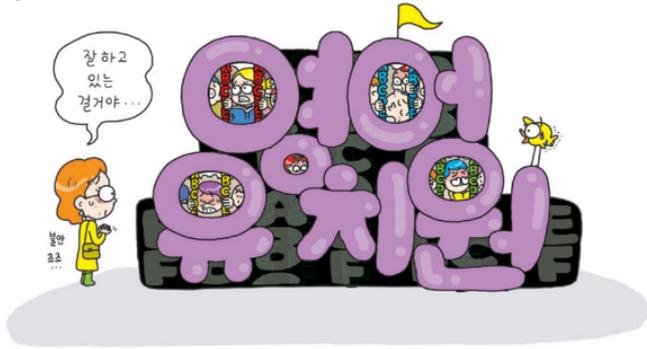
만5세, 초등학교 3학년,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중국어 수업을 실시해 그 효과를 연령별로 비교했더니, 듣기, 말하기, 읽기 모든 영역에서 만5세 유아보다 초등학교 3학년, 대학생들의 효과 차이가 현격했습니다. 즉 외국어 학습은 취학 전 유아에게 큰 효과가 없으며 굳이 하려면 듣기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학습효과가 그나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무조건 일찍 노출하는 것보다 충분한 모국어 습득, 이해력/사고력 발달, 영어 학습 동기가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영어는 왜 실패하는가』(이병민, 우리학교), 『아깝다! 영어 헛고생』(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우리학교) 등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심해요, 육아! ④



'영어 유치원' 같은 영어 몰입 환경이 대세 아닌가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요.”**

많은 부모가 경제적 부담만 아니라면 유아대상 영어 학원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학습의 효율성 및 전인적 성장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영어 노출이 안 되는 우리나라 환경, 소통의 필요성이 없는 동기 부재 등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중학교 1학년 수준과 맞먹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프로그램은 아이의 인지·정서 발달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 형태 1순위로 영어 유치원을 꼽습니다. 크게 얻는 것 없이 중요한 것은 잃어버릴 수 있는 나쁜 선택은 피하세요.

②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시설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어학원'으로 정규유아교육·보육기관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또한 어학원이 '유치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상 금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책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영어수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입니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흔히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기관은 학원법에 의해 등록된 유아 영어학원 즉, ‘학원’일 뿐입니다. 그에 따라 유아 영어학원은 전공 관계없이 강사를 둘 수 있고 급식도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하루 4~5시간 이상 아이들이 머무르는 곳임에도 시설, 강사 자격, 급식 등 기본환경이 관리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7세 교재는 중학교 1학년 수준과 맞먹어” (이슬기, 영유아사교육포럼 연구원)

유아 영어 학원 7세반 교재의 어휘 수준을 렉사일지수(미국에서 개발된 독서능력 평가지수)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평균 420L로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어휘 수준(295~381L)보다 높았습니다. 유아의 영어 교재 수준이 중1 영어교과서보다 어려운 수준이지요. 또 교재 6권 전체에서 사용된 어휘수도 1,794개로 이는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총 어휘수(1,250개)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영어학원 수업 교재는 유아의 학습 발달 단계에 맞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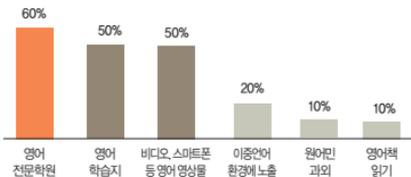
“우리나라 환경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효과 없어”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우리나라는 전일제 영어학원에서 매일 원어민 영어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일상생활 대부분이 다시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영유아 시기의 영어 노출의 학습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지요. 아이들이 미국 초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영어로만 진행되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상 유아기에 영어 학원에 보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영어 대상 영어 학원,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유형 1위”

20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

소아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조기영어교육의 형태를 질문한 결과, 60%가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꼽았습니다. 비디오와 스마트폰보다 해롭다는 것이지요. 유아 영어 학원은 영어 교과를 단어시험, 문법 같은 과목으로 가르치고, 수학, 과학도 영어로 진행되기에 부담이 큼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전인적 발달 시기에, ‘외국어 학습’만을 목적 삼는 유아 영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유아 영어학원은 어디까지나 ‘학원’일 뿐, ‘유치원’으로 홍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기관을 발견하면 해당 시도교육청/혹은 noworry.kr로 신고해주세요.

독서교육의 골든타임을 영유아기라고 하던데요?



“12세 이전 아이들에게는 독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문자 중심의 과도한 독서는 오히려 뇌 발달에 독이 됩니다. 영유아 시기 독서교육에서는 문자 정보를 받아들여 학습하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 책 읽기의 즐거움 그 자체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실을 서재로 꾸며야 한다’거나, 한 권이라도 더 읽히려는 ‘다독(多讀)’의 부담도 내려놓으세요.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답니다. 책 읽기는 아이와 부모가 이야기하며 좋은 경험을 갖는 기회로 이해해야 하며, 독서 성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유아기의 독서는 엄마 책임이에요” (윤일순, 남양주 개구리어린이집 원장)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책을 엄마가 먼저 읽어 보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 하듯이 들려주세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엄마의 목소리에 엄마의 느낌을 실어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와 함께 읽은 책임기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이런 책 읽을 때의 따스한 감정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찾아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자칫 영유아에게 책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어” (신성욱, 과학저널리스트)

‘독서학(Science of Reading)’에 의하면 독서 능력의 발달은 생물학적인 뇌 발달의 과정과 같이 간다고 합니다. 10대 중반을 지나서야 뇌는 비로소 독서의 최종 단계인 분석과 추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시하듯, 공부하듯 독서를 강조하게 되면 아이는 독서를 힘든 기억,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요. 이 경우 책은 위험한 물건이 되고 맙니다. 책은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기 위한 도구입니다. 책에 아이를 가두지 마세요.

“영유아기 책임기는 그 시간의 분위기와 감정이 더 중요해” (정승훈, 국제도서관교육연구소 연구원)

요즘 유행하는 책육아 중 다독을 중시하기도 하는데, 영유아 시기 아이들은 다독보다 몇 권의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 엄마 아빠가 반복적으로 책 읽어주기만 해도 충분하지요. 영유아 시기 책임기는 훗날 부모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의 분위기, 환경, 느낌으로 기억에 남기 때문에, 책 내용을 습득시키려 하기 보다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재미로 책을 읽어야 언어 발달에 도움 돼”

김숙령 · 육길나(2007) <어머니와 유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현황 및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과 유아의 언어표현력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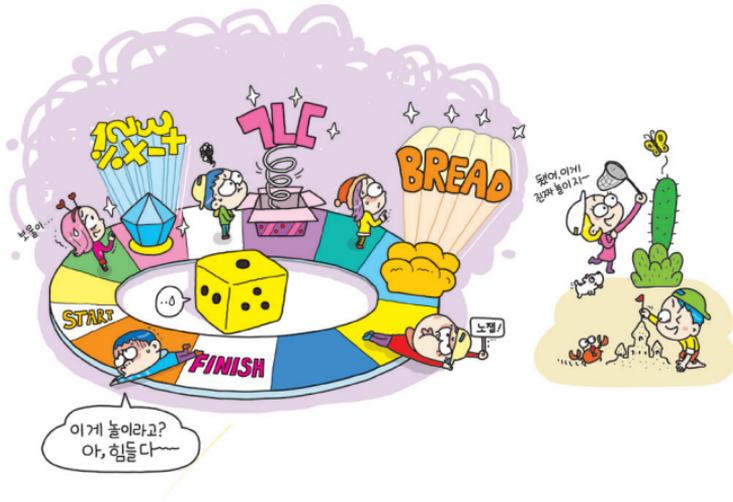
자녀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의 언어발달이 오히려 촉진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학습이나 두뇌 발달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그 순간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아이와 책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유아기 독서는 ‘읽어주기’와 ‘반복읽기’가 핵심입니다. 많이 읽어야 한다는 부담, 독서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어린이도서연구회(www.childbook.org), 어린이책시민연대(www.eorinibook.or.kr/) 등에서 소개하는 연령별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하세요.

안심해요, 육아! ⑥



요즘 확산되는 놀이 교육은 일반적 교육에 비해 부작용이 덜하다는데요?

**“놀이에 의도와 목적이 붙는 순간
놀이도 효과도 모두 놓치게 됩니다.”**

요즘 학원, 문화센터, 교재·교구 등 많은 영유아 교육업체의 ‘놀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학습의 결과도 좋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놀이 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가 목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에 특정 의도와 목적이 들어갈 경우, 아이들은 그것을 놀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한 효과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됩니다. 놀이를 통한 성장은, 아이들이 활동을 주도하며 놀이 이외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즐거움을 누릴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놀이가 학습의 도구로 이용된다면 아이도 놀이로 받아들이지 않아” (EBS ‘놀이의 반란’ 제작팀)

‘놀이식 학습’을 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을 낼 수 없을 때, 그것을 놀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놀이라고 할 수 없지요. 놀이식 학습은 아이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날의 학습량을 마쳐야하니까요. 이처럼 놀이를 통해 과제를 요구하고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놀이가 아닙니다.

“놀이를 매개로 한 교과 수업’은 놀이가 아냐” (임재택,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회장)

놀이식 수업을 한다는 놀이학원(일명 ‘놀이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교과목에 놀이를 접목하려고 한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학습적 의도가 존재하기에 ‘놀이’ 자체로 보기 어렵겠지요. 더구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놀이학원의 본 취지를 벗어나 영어 교과 시간이 증가하고, 한글과 한자 등 초등학교 선행 준비를 위한 교과가 등장하기도 해 유아 단계의 교육적 목표에 어긋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위험성 지적해.” (제충만, ‘놀이터를 지켜라’ 저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놀이의 핵심 가치를 아이가 스스로 주도하는 주도성, 놀이 그 자체 외에 다른 목적을 두지 말 것,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 이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지나치게 구조적이고 계획된 프로그램은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아이에게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모든 시간을 계획되고 목표지향적 활동으로 채운다면 아동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놀이를 부모가 지지할수록 아이들 정서와 자아가 건강해져”

2015, 최은정 등,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부모가 놀이를 학습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 자체를 중요하게 볼 때,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거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학습이 아닌 놀이의 가치를 알고 유아의 놀이를 지지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지?

아이들의 진짜 놀이를 지지해 주세요. 오로지 놀이만을 위한, 재미를 위한 시간을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놀이의 반란』(EBS 놀이의 반란 제작팀, 지식너머),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편해문, 소나무) 도서를 참고하세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은 떼고 수학 연산도 끝내야 한다는데요?



“2017년부터 초등 한글수업이 두배 늘어났고, 수학도 기초개념 중심으로 쉽게 구성되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해득과 수학 연산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입학 후에 따라갈 수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2017년에 도입된 새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해득 교육 시간을 종전보다 두 배로 늘렸고 수학 또한 기초개념을 익혀가는 과정으로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학 전 선행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격차가 생겨도 짧으면 두 달, 길면 1년 안에 학습 격차가 사라집니다. 유치원 때는 관찰력, 상상력 등을 충분히 키워줘야 하는 시기인데, 벌써 문자와 숫자를 알아버리면 오히려 그 시기에만 발달되는 뇌의 다른 능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영유아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 (신성욱, 과학자넬리스트)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한글 정도는 깨우쳐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문자 교육을 지양하라고 권고합니다. 어떤 나라는 영유아에 대한 문자 교육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조기 문자 교육은 영유아의 뇌 발달에 오히려 해롭다는 과학적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유아기에 초등 선행교육을 시키면 전두엽 발달 힘들어” (서유현, 전 서울대 의대 교수)

만 3~6세 시기는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종합적인 사고와 창의력, 판단력,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이며, 인간성, 도덕성, 종교성 등 최고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교과는 측두엽을 발달시키는 교육입니다.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에 측두엽을 발달시키는 학습을 미리하면 전두엽은 발달하지 못하고 측두엽마저 손상됩니다.

“한글·수학 습득 위한 학습지 활용, 유아에 적절한 교수법 아냐”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취학 전 한글 이해와 수학 연산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학습지입니다. 대부분의 학습지는 수학 연산 및 따라 글쓰기를 단순하고도 기계적으로 반복시키고 유아의 개별차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두엽이 발달하는 유아기에 학습지를 활용한 교육은 전두엽을 해치며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초등학교 한글 교육 시간, 종전에 비해 2배 늘어
교육부 2015 교육과정 결정사항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부터 개발된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는 한글 교육이 종전 27시간에서 약 55시간 분량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무리한 받아쓰기를 시키거나 유치원 등에서 초등 대비 성격으로 일기쓰기 등을 시키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해 무리하게 한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라면, 누리과정만으로 충분히 한글과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혹시 한글을 못 깨우친다면, EBS ‘한글이야호!’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엄마표 교육을 제대로 못해 아이에게 미안해요.



**“엄마표 교육은 자칫 엄마와 아이 모두
지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엄마표나 홈스쿨 학습의 목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 잡아도 충분합니다. SNS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후기 글, 옆집 아이의 진도와 워크북 및 학습지와 비교해 불안하고 조급해 하는 순간, 아이가 먼저 알아차리고 긴장하다가 끝내 아이와 부모 모두 지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엄마표 교육은 나와 내 아이가 함께 얼마나 즐겁게 활동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영유아 시기에는 학습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정서·인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즐거운 경험과 기억일 뿐입니다.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교육의 목표는 결과보다는 과정의 재미” (이경민 (사)공동육아외공동체교육사무총장)
 아이들이 눈치 못 채는 자연스러운 엄마표 교육은 없습니다. 놀이식 교육을 표방하더라도 활동의 의도, 목표는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엄마·아빠가 함께 즐기지 못하면 아이도 즐기지 못하고 학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활동의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활동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재미를 중시하면서 아이와 즐거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진도에 집착하면 쉽게 지치고 관계 나빠져” (윤다옥 노원리상담소 소장)
 엄마표 교육의 장점은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아이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재미있는 활동·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발달 상황과 컨디션에 맞춰 유연하게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정한 학습량과 진도에 맞춰 무리하게 끌고 가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엄마표, 자칫 엄마에 의한 입주 과외로 변질될 우려 있어” (이남수, 솔빛이네엄마표영어연수'자재)
 많은 경우, 엄마표 학습은 엄마 혹은 주양육자가 또 다른 '입주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엄마표 학습은 아이가 스스로 하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아이가 따라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의지가 쫓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가 욕심내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과 없이 자녀와 사이만 나빠지게 됩니다.

“엄마표 영어 성공 요인이 내게 맞는지 잘 따져 보세요”

부모 요인	자녀 요인
자녀 학습 관리 능력 및 정보력	영어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욕
부모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	기본적인 학습 능력과 의지
부모의 시간 및 비용 지출 여력	순응적이고 성실한 성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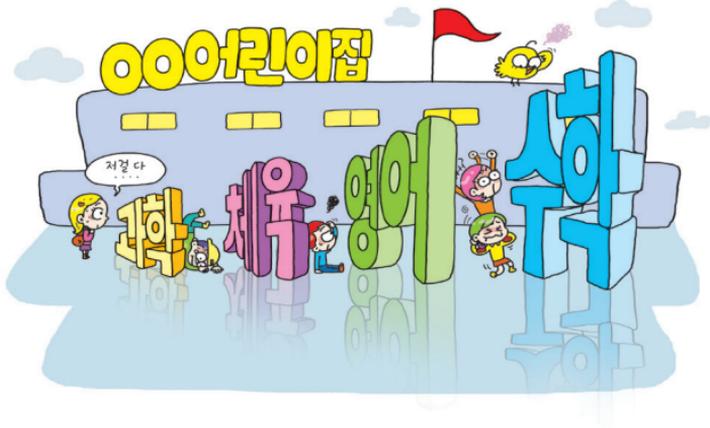
엄마표 영어 성공에 필요한 부모와 자녀의 요인을 정리한 것입니다. 엄마표 영어를 실천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 × 로 체크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엄마표 영어를 시도하다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이 위의 조건에 충분히 안맞기 때문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지?

엄마표 교육을 할 때 '아이가 학습할 준비가 되었는지 관찰한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방식을 쫓지 않는다', '아이가 즐기고 있는가.',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자.' 등 지침을 활용하세요. 『아깝다 영어 헛고생!』(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우리 학교 출판) 135쪽을 참고하세요.

영어·수학·과학 등 교과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이 좋은 곳인가요?



“오히려 특별활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강권하는 곳은 곤란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누리과정 외에 과학, 체육, 영어, 수학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좋은 기관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등학교를 대비하기 위한 선행학습 기관이 아닌,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유아교육·보육기관입니다. 좋은 유치원이란, 충분한 자유 선택 활동 시간 혹은 놀이시간 허용,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존중, 교사들의 잦은 이직이 없는 곳 등이 중요합니다. 특별활동 갯수, 비싼 교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놀이 시간이 많고 선생님과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기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다는 자유 선택 놀이 활동 시간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매일 1시간 이상의 바깥 놀이를 제공하는지, 자연을 주기적으로 접하며 놀 시간을 주는지, 편하게 설 공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세요. 기관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덴마크 유치원은 수업이 없고 하루종일 아이들을 놀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덴마크에 갔더니, 유치원 교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숲 이곳저곳에서 놀고 벌레잡고 닭을 쫓아다니더라고요. 어떤 수업시간이냐 하니 유치원 원장님 말씀이 아이들이 오전 9시에 등원해서 오후 3시에 돌아갈 때까지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시기의 아이는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서 알파벳이나 숫자를 배워서 안 되고 그저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활동은 기관의 금전적 이해관계 개입되는 경우 적지 않아”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2018 정부 감사에 의해 밝혀진 유치원 비리 사태를 살펴보면, 특별활동 문제점이 잘 드러납니다. 특별활동 교재와 교구를 구입할 때 유치원과 교구 업체 간 뒷거래가 있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학원에 특별활동을 맡겨 학원이 지출할 비용을 유치원이 부담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유치원의 특별활동이 기관들의 금전적 이해관계와 연결된 경우 적지 않아, 특별활동에 너무 치중하는 기관은 오히려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유치원·어린이집,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노원리상담넷

좋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① 자유 선택 활동 시간(놀이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가? ② 특강(특별활동,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가?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요”라는 권유도 포함) ③ 아이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공간(실내, 실외 포함)이 확보되어 있는가? ④ 교사가 자주 바뀌지 않는 곳인가?



그럼 어떻게 하지?

법적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오전에는 운영할 수 없고,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해 실시해야 합니다.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역시 방과 후에만 원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로만 운영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을 기관이 위반할 경우, ‘유치원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해주세요.

다중지능, 몬테소리, 프리벨... 교육이론이 접목된 교재·교구는 교육적으로 검증된 것이 많아요?



“그 이론을 만든 학자조차도 자기 이론이 왜곡됐다고 걱정해요.”

보통 몇십만원씩 하는 교재·교구, 전집 세트... 교육학자 이름과 이론을 내세우며, 우리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홍보하지요. 그런데 내세우는 이론과 학자는 달라도 그 구성과 내용을 보면, 결국 교재의 목표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교재 교구 이론 배경으로 활용되는 다중지능이론 창시자인 가드너 교수는 자기 이론이 시작 때부터 왜곡 오용되었다며 한국의 부모들과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의 주장을 거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교재나 교구를 이용한 교육이 본래 목적을 잃고 의도치 않은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비싼 교재·교구로 인해 학습의 강요가 이루어져서는 안돼” (최현주, 영유아사교육포럼 부대표)

교재·교구 회사는 아이 한명 한명의 상태와 발달에 맞는 상품을 만들 수는 없기에 아이들 각각이 가지는 고유한 지능과 적성을 발달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교재·교구는 대부분 값비싼 상품이기에 설사 의도하지 않더라도 학습이나 활동이 강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잇감 정도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갖고 놀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몬테소리, 프리벨이 알면 뒤로 넘어갈 일” (염지숙, 건국대 유아교육과 교수)

몬테소리 교육은 본래 정신지체 장애 아동들을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업체가 이런 배경과 철학은 무시한 채 오직 인지 발달에 초점을 맞춰 영어, 한글, 수 개념 교재교구들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리벨의 대표적인 교재교구인 은물 역시 아동이 자유롭게 은물을 가지고 놀면서 그 특성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아동의 자유로운 활동을 관찰하기보다는 그 반대 교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지원펜 등의 과잉자극으로 아이가 잃게 되는 것” (양신영, 영유아정책 선임연구원)

최근에 나오는 교재 교구에는 펜을 갖다대는 즉시 소리가 나오며 반응하는 음성지원펜 등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기능을 갖춘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구들에 오래 노출되면 아이의 뇌를 빠르고 강한 정보에만 반응하게 훈련시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거나 인내심이 필요한 활동에 점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잉 자극을 주는 기계 소리보다는 엄마 아빠의 음성으로 아이에게 말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국의 부모들은 사교육 상품 업체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거부해야”

‘다중지능이론’ 창시자 H.가드너와의 편지 대담



지난 2014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은 수많은 교재·교구 상품에서 ‘다중지능이론’을 내세우고 있어 이의 창시자인 가드너 교수(하버드대)와 편지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가드너 교수는 회신을 통해, “다중지능이론은 시작했을 때부터 왜곡되고 오용되어 왔다”고 밝히며 “부모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의 주장을 거부(Consequently parents and teachers should reject such claims)”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 ① 교재·교구를 구입한다면, 계획된 활동보다 아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② 공원과 놀이터에 아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찾아 보세요. ③ 장난감 도서관, 지역 내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각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보를 활용하세요.)



영재검사를 하면 아이 수준을 알 수 있어 빨리 해 보라는데요?

**“영재를 판별하는 적절한 시기는
지적 능력이 안정되는 최소 10-11세입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내 자녀는 영재입니다. 그러한 심리를 악용해 영유아 발달검사를 영재 검사, 영재 판별 검사로 둔갑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영재를 판별하는 검사와 교육과정 대부분은 검증된 도구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시기의 특성상 적절한 영재 검사 도구를 추천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영재성이 엿보인다 해도 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시기는 초등 입학 이후 10~11세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가 소질을 보이는 분야와 함께 신체, 정서, 지적 영역이 고루 발달할 수 있는 전인적 발달에 더 집중해주세요.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심화학습보다는 선행학습에 가까워”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정확한 검사도구가 없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관찰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사교육 업체의 판별 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유아 대상의 영재교육이 국가 수준이 아닌 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심화학습보다는 선행학습 위주 프로그램이 많아 진짜 영재를 만들어 내는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재판별 검사 결과가 유의미한 시기는 적어도 10~11세” (정윤경,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영아기 때는 물론, 유아기 때 실시한 지능검사 결과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오전과 오후의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정도로 편차가 심하지요. 지능검사에서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오려면 아이의 지적 능력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영유아기는 언어 능력이나 상호작용 능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능검사는 10~11세 정도 돼야 쓸모 있으며, 따라서 이전 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낙담할 이유도 없고 높게 나왔다고 영재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발달이 빠른 것과 영재성이 있는 것은 구분되어야” (이혜린, 그로잉맘 대표)

영재성은 숨기고 눌러도 튀어나오는 것이지, 개발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재성이 있는 것과 발달이 빠른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가령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이 빠른 아이라고 판단해야지, 똑똑한 아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유아 시기에는 발달검사, 언어검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단일 검사만으로는 영재 판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아의 영재성 판별을 위한 적절한 검사 도구 제시, 아주 힘들어”

황희숙 · 류지영(2011) <유아 영재 판별의 가능성 및 한계>



이미 많은 학자들이 유아기 영재를 판별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고 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Pfeiffer(2002)는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유일한 최적의 검사 도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Greenwood, Lize & Carta(2002) 역시 유아들은 시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주의 집중이 짧은 것은 물론이고, 아동의 발달이 빠르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기술적으로 적절한 내용의 검사 도구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영유아기 시기는 일부 특정 영역의 영재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기 보다는 정서, 애착, 신체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유로운 놀이와 부모와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스마트 기기에 빨리 익숙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트 기기에 일찍 노출되면 아이들의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니 최대한 늦추세요.”

4차 산업혁명, AI, 코딩, 미디어교육... 미래사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기술이 소개될 때마다 우리 아이가 뒤처지진 않을까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 매체를 너무 이른 시기에 노출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아무리 외국어, 코딩 등을 배우기 위한 교육용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오히려 뇌에 과잉자극을 주어 미디어 외의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어 어린 시절에 발달하는 뇌의 전두엽 성장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 IT회사인 애플과 구글사 임직원들의 경우,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컴퓨터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미디어 노출은 최대한 늦춰주세요.



“구글·애플 등 국제 IT 기업 임원 자녀들, 첨단 기기 사용 안해”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저,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중)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제작사의 경영진 자녀들이 다니는 어느 미국 학교에서는 첨단 기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펜과 종이, 뜨개질 바늘, 진흙이 수업 도구로 등장하고 컴퓨터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화면 기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교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고 가정에서도 권장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영상에 노출되면 뇌의 전두엽 기능 멈춰.” (권장희,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어린 시기에는 전두엽, 즉 눈과 귀로 전달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이 발달합니다. 실험에 따르면 책을 볼 때 뇌 앞쪽 전두엽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반면 비디오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는 뇌가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후두엽이 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줄 게 아니라 아이와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상상을 하며 전두엽을 자극받게 됩니다.

“2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절대 노출하지 마세요”

(201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아이는 태어나서 키와 몸무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뇌의 여러 부위도 속도를 달리하며 성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뇌가 성장하고 분화하는 데에는, 화면을 통한 간접 체험이 아니라 현실 속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만 2세 미만의 시기에는 가급적 그 어떤 종류의 스마트 미디어에도 노출시키지 말 것을 권고하는 국제 기준이 다수 존재합니다.

“미국소아과학회, 18~24 개월 미만 아동 미디어 사용 금지”

미국소아과학회 권고문 www.aap.org

- 18~24개월 미만 아동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은 피하세요.(단 영상통화 제외)
- 디지털 미디어를 아동 혼자 사용하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부모와 함께 사용하세요.
- 만 2~5세 아동의 경우 하루 1시간으로 사용시간을 제한하세요.
-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수면시간, 식사시간, 부모-자녀 놀이시간에는 미디어를 차단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지?

아이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만큼, 부모와 대화하거나 놀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부득이하게 미디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아이 혼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혹은 보호자)와 함께 최소한의 일정 시간을 아이와 약속한 후 사용하세요.